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 구조조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85-2001

이상현(한국외국어대)*

- I. 서론
- II. 1952년 볼리비아 혁명과 주석산업의 국유화
- III. COMIBOL 구조조정의 전개과정
- IV. COMIBOL 구조조정의 결정요인
- V. 결론

I. 서론

1952년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Corporación Nacional Minera de Bolivia, 이하 COMIBOL)는 20세기 대부분의 시기 동안 볼리비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천연자원인 주석과 다른 주요 광물들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그러나 볼리비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던 COMIBOL은 1980년대 이후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경제안정화 및 구조개혁 정책 그리고 국제주식 가격의 폭락에 따른 경쟁력 상실이라는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즉 국가가 지분의 100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COMIBOL은 1985년부터 약 15년 동안 제련소를 포함하는 일부 자산의 처분, 적자광산

* Sang-Hyun Yi(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anghyunyi@gmail.com), "The Determinants of the Restructuring of COMIBOL, 1985-2001".

의 폐쇄와 대량해고 그리고 민간자본과의 임대계약 및 합작사업 (Joint Venture)을 통한 광산운영권 민간 이양 등의 다양한 구조조정 노력을 추진하였다. 결국 일련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한때 30,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던 COMIBOL은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2001년 20-30여명의 직원만이 근무하는 지주회사로 탈바꿈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COMIBOL과 COMIBOL 자산의 가장 주요한 부분인 광산의 소유권을 국가 소유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볼리비아의 COMIBOL 구조조정은 그 형태와 내용이 지니는 중요성과 더불어 경제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즉 완전한 민영화도 완전한 국가 소유의 국영기업도 아닌 COMIBOL 구조조정의 결과는 “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볼리비아는 COMIBOL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는가?” “볼리비아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결정짓는 동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광업부문 구조조정은 다른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의문들을 제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볼리비아의 COMIBOL 구조조정 사례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의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COMIBOL의 구조조정은 197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실시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도입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수입대체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적 성장정책의 고갈과 이에 따른 외채위기로 경제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라틴아메리카 각국들은 경제영역에서의 시장의 역할 확산을 기조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도입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민영화, 탈규제, 그리고 무역과 금융을 포함한 경제 각 부문의 자유화를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진된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국가부문의 축소라는 이념적 상징성과 재정적자 축소와 외채지불을 위한 자금마련이라는 현실적 목적에 부합하여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부각 되었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금융, 통신, 교통은 물론 전기, 수도 등 공공시설에 이르기까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광범

위하게 실시하였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국영기업 구조조정의 형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별로 그리고 산업부문별로 각각의 결과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즉 어느 나라는 전면적 민영화를, 반면 어느 나라는 국영기업 체제의 고수를, 그리고 어느 나라는 민영화도 국영체제도 아닌 중간적 또는 복합적 형태의 구조조정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경제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및 광업부문은 다양한 구조조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아르헨티나가 유서 깊은 국영석유회사 YPF의 전면적 민영화를 실시한 반면 멕시코(PEMEX), 베네수엘라(PDVSA), 칠레(CODELCO) 등의 경우 광범위한 민영화가 이루어진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국영기업 체제의 고수라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구조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국영기업 구조조정의 결과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데 근본적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중간적 또는 복합적 구조조정의 모습을 보여준 COMIBOL의 사례를 통하여 라틴아메리카 국영기업 구조조정의 원인과 이유 그리고 다양한 구조조정의 형태를 결정짓는 동인들을 밝혀내겠다.

볼리비아의 가장 대표적인 국영광업기업 COMIBOL의 구조조정을 분석한 본 연구의 범위는 COMIBOL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5년부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일단락 짓는 민간자본과의 임대계약 및 합작사업이 일단락되는 2001년까지로 한정한다. 본 논문은 다음의 내용과 순서로 전개된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1952년 볼리비아 혁명과 COMIBOL 국유화의 과정과 목적 그리고 의미를 살펴 보겠다. 특히 1952년 혁명과 COMIBOL의 국유화 과정에 대한 분석은 과거의 혁명과 국유화 과정으로 인하여 형성된 제도적·정치적 유산이 이후의 COMIBOL 구조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를 지닌다. 제3장에서는 COMIBOL 구조조정의 전개 과정을 살펴 보겠다. COMIBOL 구조조정의 전개과정은, COMIBOL의 분화와 대량해고 정책으로 대표되는 첫 번째 단계(1985-1989)와 민간자본과의 합작사업의 본격적 도입이 특징인 두 번째 단계(1990-2001)

로 나뉜다. 제4장에서는 전면적 민영화도 완전한 국영화도 아닌 중간적 또는 복합적 형태의 COMIBOL 구조조정을 가져온 COMIBOL 구조조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COMIBOL 구조조정을 추동한 경제적 결정요인과 더불어 COMIBOL 구조조정의 형태를 결정지은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으로 대표되는 반민영화 정치세력의 역할을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COMIBOL의 경제적 역할과 COMIBOL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힘의 상호작용 속에서 COMIBOL 구조조정의 형태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앞서 밝혀진 증거들을 기반으로 증명하도록 하겠다.

II. 1952년 볼리비아 혁명과 주석산업의 국유화

식민시대 이래로 광업은 볼리비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주석은 식민시대부터 19세기까지 볼리비아의 수출을 책임지던 은을 대신하여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작고 가난한 나라인 볼리비아에서 주석산업은 3명의 실력자들-Patiño, Aramayo 그리고 Hochschild-에 의해서 독점되었다. 주석산업을 독점한 세 기업은 해외자본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부패한 소수의 과두정치체제를 양산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단일산물의 수출에 의존한 종속적 국가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주석산업에 기반한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은 1952년 볼리비아 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볼리비아의 국영광업공사인 COMIBOL의 탄생은 볼리비아 혁명의 직접적 산물이다. 볼리비아 혁명은 광범위한 개혁을 약속한 민족주의혁명운동당(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 이하 MNR)이 승리한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 시키려는 군부의 시도에 반발하여 발발하였다. MNR의 개혁은 “토지를 원주민에게, 광산을 국가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된다(Morales 2003, 133). 혁명의 주역으로서, 농민들과 광산 노동자들은 그들의 오랜 숙원인 구과두체제로부터의 정

치적·경제적 해방을 달성하였는데, 정치적으로는 보통선거권 확립을 통한 정치적 시민권의 획득을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토지개혁과 대광산의 국유화를 이룩하였다.

특히 세 주식회사의 모든 소유 자산과 권리의 국유화를 통해 이루어진 COMIBOL의 설립은 1952년 볼리비아 혁명의 핵심이다. 혁명 이후 첫 대통령인 빠스 에스텐소로(Victor Paz Estenssoro)에 의하면,

광산 국유화는 두 가지의 목적을 추구한다. 첫째 목적은 볼리비아인 모두에게 볼리비아의 부가 가져오는 혜택을 나눠주는 것이며, 두 번째 목적은 국가보다 더욱 강력해지거나, 국가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정치적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다(Paz Estenssoro, *Mensaje al Pueblo*, 1953년 8월 6일. Vega 1991, 64 각주 5, 재인용).

대광산의 국유화와 COMIBOL의 설립은 혁명정부가 1955년 7월 7일 제정하여 공포한 최고법령(Supreme Decree No. 4113)에 기반하여 1956년 10월 29일 정식으로 법제화 되었다. 또한 마지막 법적 절차로 1960년 9월 2일의 최고결의안(Supreme Resolution No. 97682)에 따라 광산 국유화는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그 결과 볼리비아 헌법 138조는 대광산의 국유화를 다음과 명문화 하고 있다.

국유화된 광산들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다양화를 위한 기초로서 국가 자산에 소속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민간회사로 이전되거나 팔리는 것이 금지된다. 국유화된 광산회사의 진로와 운영은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권한을 지닌 자율적인 주체의 책임이다(Congreso Nacional de Bolivi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1967; 1995).

한편 COMIBOL 소유 국영 광산의 민영화 금지라는 헌법조항은 이후 COMIBOL 구조조정 과정에서 볼리비아 정부의 정책선택권을 크게 제한하는 제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민영화 반대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된다.

대광산의 국유화는 볼리비아 경제의 주도권이 구과두체제로부터 국가로 이동했음을 의미했다. 1952년 국유화된 세 주식광산 기업들

은 광물이 외화획득의 97 퍼센트를 담당하던 볼리비아에서 수출의 70.5 퍼센트를 담당하고 있었다(Jordan and Warhurst 1992, 9)¹⁾. 또한 대광산의 국유화와 COMIBOL의 설립은 국가 경제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했다. 이후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볼리비아는 1965년 천연가스전의 국유화, 환율 및 주요 가격의 엄격한 통제, 그리고 경제영역에서의 국영기업의 광범위한 활동에 기반을 둔 “국가자본주의 모델”(Conaghan and Malloy 1994)을 유지하였다.

한편 혁명과 개혁정책은 혁명의 주역이었던 노동자와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민중부문의 광범위한 정치 참여를 촉발시켰다. 특히 광산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전국노동조합연맹(Central Obrera Boliviana, 이하 COB)은 볼리비아 정치에서 강력한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였다. 한편 구과두체제의 억압도구였던 군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군부독재 기간을 통해 다시 힘을 얻을 때까지 각종 차별과 재편성을 겪으며 힘의 약화를 경험하였다.

결론적으로, 1952년 볼리비아 혁명과 COMIBOL의 설립은 경제적으로 국가경제의 주도권이 과두체제에서 국가로 이전되고 정치적으로는 대중정치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됨으로써 볼리비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기록되었다.

III. COMIBOL 구조조정의 전개과정

COMIBOL 구조조정은 1985년에 일어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제위기와 국제주식시장의 붕괴라는 두 사건이 계기가 되어 추진되었다. 군부독재 이후 첫 민주주의 정권이었던 중도좌파 실레스 수아소(Hernan Siles Zuazo, 1982-1985)의 민주주의민중동맹(Unión Democrática y Popular, 이하 UDP)이 범한 경제정책상의 실정과 볼리

1) 한편 Richard Thorn(Thorn 1991, 168-169)은 다른 수치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유화된 광산들은 국가 주식생산의 85퍼센트 이상, 외화획득의 95퍼센트, 그리고 정부 재정액의 약 50퍼센트를 담당하였다.

비아 경제가 겪어오던 만성적 문제가 결합되어 촉발된 1985년의 경제위기는 국내총생산의 급격한 하락, 실업률의 상승, 재정적자 확대, 무역적자 확대 그리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특히, NPE가 도입될 당시 연간 물가상승률은 무려 20,000 퍼센트를 넘어서는 상황이었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한 빠스 에스펜소로(1985-1989)는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인 NPE를 발표하였다. 1952년 혁명의 주역의 한 명으로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선구자 역할을 한 빠스 에스펜소로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도입은 파격적이었다. NPE는 단일변동환율제의 도입, 수입쿼터 중지, 단일 수입관세 도입, 정부 고용 삭감, 공공부문 임금 동결, 1년간 정부투자 중지, 그리고 소비자 가격 자유화 등의 조치들을 포함하며 단기적으로는 경제안정화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주도경제의 시장주도경제로의 구조전환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1985년 당시 최대 국영기업의 하나였던 COMIBOL의 구조조정은 NPE의 일환인 국영기업 개혁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COMIBOL 행정조직의 분화와 경영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NPE의 내용을 담은 법령(Decree No. 21060)이 발표된 지 두 달 만인 1985년 10월, 국제주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창설된 국제주석회의(International Tin Council)²⁾가 과중한 재고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주석가격은 하루아침에 파운드 당 미화 5.4달러에서 2.5달러로 폭락하게 되었다. 결국 1986년 4월 국제주석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자 런던금속거래소는 주석거래를 중단하였다(Crabtree et al. 1987, 4). 국제주석가격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COMIBOL뿐만 아니라 주석이 수출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볼리비아 전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석 생산단가로 인해 이미 어

2) 국제주석회의는 국제주석협정(International Tin Agreement)을 관장하던 기관으로서 22개의 주요 주석 생산국과 소비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업무는 국제시장에서의 주석을 사고팔며 국제주석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려움을 겪고 있던 COMIBOL은 거의 모든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85년 볼리비아의 광업은 국내총생산의 4.9 퍼센트와 수출의 39 퍼센트만을 기록했으며 주석 생산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Velasco, 1985). 국제주식가격의 붕괴는 이미 NPE에 의해 제안된 COMIBOL 구조조정의 폭과 강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는데 특히 COMIBOL 광산들의 급격한 채산성 상실은 대규모로 진행된 해고와 광산폐쇄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되어 2001년 일단락된 COMIBOL의 구조조정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85년부터 1989년 사이에 이루어진 제1단계는 COMIBOL의 분화(Decentralization)와 경영회복(Rehabilitation)에 그리고 1990년에 시작되어 2001년에 일단락된 제2단계는 민간자본과의 합작사업(Joint Ventures)에 각각 주안점을 두었다.

III.1. 제1단계(1985-1989): 분화(Decentralization)와 경영회복계획(Rehabilitation)

제1단계 시기의 COMIBOL 구조조정은 COMIBOL 행정조직의 분화와 대량해고를 통한 효율성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빠스 에스텐소로 정권은 중앙집권적인 COMIBOL를 자회사들로 분리하고 노동자들을 재배치한다는 명목 하에 광산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를 추진하였다. 해고의 다른 표현에 불과했던 재배치를 받아들인 광산 노동자들은 약간의 수당을 받고 회사 사옥을 떠나야만 했다. 결국 해고 또는 자발적 퇴직을 통해 재배치의 대상이 되었던 많은 광산 노동자들은 도시빈민이 되거나 차빠레(Chapare) 지역과 같은 열대지역에서 코카재배 농민이 되었다. 특히 코카재배 농민이 된 해고 광산 노동자들은 코카재배 농민들의 조합운동에 큰 기여를 하였는데, 이렇게 조직화된 코카재배 농민들은 정부의 코카 박멸정책에 대한 급진적 저항의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 1990년대 이후 볼리비아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부의 이러한 COMIBOL 정책은 노동운동 세력과 좌파 정치권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볼

리비아 노동운동의 가장 강력한 핵심세력이었던 COMIBOL 노동자 중심의 볼리비아광산노동조합연맹(Federación Sindical de Trabajadores Mineros de Bolivia, 이하 FSTMB)은 정부의 계획에 대한 강력한 저항 투쟁을 전개하였다. 단식투쟁, 광산점거, 거리행진 등을 포함한 광산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을 1년여 동안 지연시켰다. 또한 노동운동 세력과 좌파 정치권은 정부의 COMIBOL 구조조정 계획이 민영화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는데, 빠스 에스펜소로 정권은 구조조정 계획이 민영화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변하였다. 빠스 에스펜소로는 주장하기를,

COMIBOL의 탈국유화가 아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계열사가 더욱 좋은 조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조치로 영향을 받는 주체는 중앙사무소의 직원들이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그리고 불필요한 직원들이 존재한다. 이 조치는 광산에서 노동하는 광산 노동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Presencia 1985년 9월 13일).

마지막으로, 빠스 에스펜소로 정권은 1986년 8월 25일 COMIBOL의 경영 회복을 위하여 또 하나의 최고법령(Supreme Decree No. 21377)을 발표하였다. 법령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던 일부 국영 광산들을 협동조합화하는 한편, COMIBOL의 국가소유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협동조합화(Cooperativization) 정책은 COMIBOL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독특한 구조조정 방법으로, “광산은 국가의 소유로 유지되지만, 광물의 채굴과 판매는 광산 노동자들이 결성한 협동조합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El Diario*, 1986년 9월 3일). 하지만 협동조합화 정책은 노동자의 광산에 대한 통제권 강화라는 정부의 이상적인 정당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COMIBOL 소속 노동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1986년 8월 법령은 COMIBOL 구조조정의 첫 단계 과정상의 두 가지 목적, 즉 국유화된 광산의 민영화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준수와 COMIBOL의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을 위한 광산 노동자의 축소 및 비효율적 광산의 폐쇄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시도

였다.

첫 단계 구조조정의 결과로 COMIBOL은 다섯 개의 자율적인 광산 계열사(Oruro, La Paz, Potosí, Quechisla, 그리고 Oriente)와 두 개의 자율적인 제련소(Complejo Metalúrgico de Vinto와 Complejo Metalúrgico de Karachipampa)로 분리되었다. 또한 COMIBOL의 모든 광산은 1986년 9월부터 1987년 5월까지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폐쇄되었다. 우아누니(Huanuni), 까라폴레스(Caracoles), 콜로끼(Coloqui) 등 경제성을 지니고 있던 일부 광산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산들은 영원히 폐쇄되었다. 한편 9개의 공식적으로 폐쇄된 주식 광산의 운영권은 해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합들로 이전되었다. 결국 첫 단계 구조조정의 결과로 1985년 27,000명에 달하던 COMIBOL의 노동자는 1987년에 이르러 7,0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한편 첫 단계의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COMIBOL은 광업부문에 서뿐만 아니라 볼리비아 경제에서 차지하던 우월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1987년 볼리비아 총광업생산량이 25 퍼센트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OMIBOL의 생산량은 무려 59 퍼센트가 하락하였다. 또한 1987년은 1952년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COMIBOL 이외의 광업 생산 회사들이 COMIBOL의 생산량을 초월한 해로 기록되었다. 더불어 1985년부터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에너지 산업이 비에너지 광업 부문을 제치고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었는데, 에너지 산업이 총수출의 44 퍼센트를 차지한데 비해 비에너지 광물이 37 퍼센트를 그리고 여타의 산업이 19 퍼센트를 각각 기록하였다 (Velasco 1985, 131-132; Velasco 1987, 125).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COMIBOL의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업은 여전히 볼리비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산업부문 중 하나였다. 이는 볼리비아 국가가 COMIBOL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한 민영화나 청산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한데, 기획장관인 기예르모 베드레갈(Guillermo Bedregal)의 “광업의 회복은 국가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이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국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Presencia*, 1985년 10월 26일).

<표 1> 부문별³⁾ 광업 생산의 변화, 1980-1989(*)

연도	COMIBOL	중간규모 생산자	소규모 생산자(**)	계
1980	100.00	100.00	100.00	100.00
1985	51.18	73.22	68.71	58.66
1986	22.05	73.18	91.95	43.12
1987	7.76	83.12	177.83	47.25
1988	22.80	104.81	233.24	69.07
1989	38.61	113.61	267.45	85.53

(*) 광업생산의 변화는 각 부문별로 생산된 광물의 가치의 합을 기준으로 하였다.

(**)협동조합 포함.

출처 : Vega 1991, 75, 재인용

결론적으로 COMIBOL 제1단계 구조조정은 COMIBOL이 기업청산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실적의 측면에서 볼 때 1986년 2억 달러까지 기록했던 COMIBOL의 적자폭이 대폭 줄어들어 들기는 하였지만 1989년 여전히 42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의 향상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COMIBOL 구조조정의 제2단계는 광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투자유치에 집중되었다.

III.2. 제2단계(1990-2001): 합작사업(Joint Ventures)

COMIBOL의 제2단계 구조조정은 1991년 1월의 최고법령 No. 22408과 1991년 4월의 ‘광업법률현실화법(Ley de Actualización Código Minero)’으로 볼리우는 새로운 광업법 그리고 1991년 11월의 개정광업법 등 일

3) 볼리비아 광업부분에서 중간규모 생산자와 소규모 생산자의 구분은 1일 생산량 200t을 기준으로 한다. 즉 1일 생산량 200t 이상의 생산자는 중간규모로 이하의 경우 소규모로 분류한다. 한편 COMIBOL의 경우 대규모 생산자로 분류한다.

4) 이 시기 COMIBOL 적자의 감소는 비효율적 광산의 폐쇄 및 적자생산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련의 새로운 법률의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새로운 광업법 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COMIBOL은 오직 합작사업 또는 임대계약(leasing contracts)을 통해서만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새로운 광업법에 따르면 COMIBOL은 직접생산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작은 지주회사⁵⁾로 변신하여 민간자본이 합작사업 또는 임대계약을 통해 광산을 운영하는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국유화된 광산의 합작사업화 정책은 또 다시 COMIBOL의 민영화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노조, 좌파 정당, 그리고 세력이 급격히 커진 볼리비아광업협동조합연맹(Federación de Cooperativas Mineras de Bolivia, 이하 FENCOMIN)⁶⁾은 정부의 계획이 국가의 귀중한 천연자원을 국제자본에게 넘겨주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합작사업화 정책이 COMIBOL의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였다. 광업부 장관인 곤살로 발다(Gonzalo Valda)는 COMIBOL의 합작사업안은 “국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합작사업은 재도약을 위한 것이지 그 어떤 의미로도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Presencia 1991년 11월 7일).

요약하면, 합작사업을 새로운 전략으로 도입한 제2단계 구조조정은 여전히 COMIBOL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즉 합

5) 지주회사는 넓은 의미로 타회사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그 기능의 내용과 범위에 관련해서는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이재형 2000; Bonbright and Means 1932). 이에 법적으로 보장된 절대적 소유권만을 유지하고 사전계약으로 성립된 로얄티 지급의 조건 하에 20-30여년에 달하는 일정 기간 동안 채굴권을 비롯한 모든 생산 활동의 자율적 통제권을 민간투자자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임대계약 또는 합작사업의 행정업무만을 관리하는 COMIBOL의 경우는 가장 소극적 형태의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록 절대적인 법적 소유권은 유지하고 있으나 경영통제권이 완전히 민간투자자에 이전된 광산들을 COMIBOL의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임대계약 또는 합작사업의 과정에서 해고 이후 개인적 자격으로 민간투자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은 지주회사 COMIBOL의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6) FENCOMIN의 급격한 세력강화는 COMIBOL의 1단계 구조조정 이후 추진되어온 협동조합화 정책의 결과이다. COMIBOL의 비효율적인 광산들의 협동조합화 정책의 결과 FENCOMIN 소속의 광산 노동자는 볼리비아 광업 노동자의 전반적 축소에도 불구하고 1985년의 약 28,000명에서 1992년 약 54,000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 COMIBOL의 노동자 수는 약 27,000에서 약 6,000명으로 감소하였다(Evia and Molina Barrios 1997, 7).

작사업은 광업부활을 위한 민간자본의 투자유치 모색과 동시에 국유화된 광산의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준수라는 두 가지의 기본 원칙을 따르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합작사업계획은 노조의 강력한 저항과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로 인한 머뭇거림에다 국제광물가격의 하락이 겹치며 정책을 처음으로 추진한 빠스 사모라(Jaime Paz Zamora)정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COMIBOL 광산의 합작사업은 비록 더디게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1993년 집권한 산체스 데 로사다(Gonzalo Sánchez de Lozada) 정권하에서 재개되었다. 1985년 NPE의 실질적 설계자인 산체스 데 로사다는 볼리비아판 민영화인 “자본화(Capitalization)”⁷⁾ 정책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가속화 하였다. 산체스 데 로사다의 자본화 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던 COMIBOL의 광산들은 광산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차례로 합작사업 또는 임대운영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산체스 데 로사다 정권은 경제성이 희박한 광산들을 점진적으로 폐쇄하여, 결국 1996년에 이르면 까라폴레스 주석 광산, 풀끼리 주석-아연 광산, 그리고 우아누니 주석 광산 등 세 개의 COMIBOL 광산만이 생산을 지속하였다. 이 세 광산은 모두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광산들로서, 특히 우아누니 주석광산은 볼리비아에서 가장 크고 풍부한 주석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997년 COMIBOL에는 단지 2,500명의 직원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1985년의 27,000명, 그리고 1992년의 6,000명과 비교할 때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Presencia 1997년 3월 12일; Velasco 1995, 99).

결국 제2단계의 COMIBOL 구조조정은 마지막으로 남은 세 광산에 대한 민간자본과의 합작사업 체결과 2000년 체결된 빈또(Vinto)

7) 자본화(Capitalization)는 민영화라는 표현조차 금기시되는 볼리비아에서 채택된 유사 민영화 또는 부분 민영화 정책으로, 국영기업을 민간자본에 전면적으로 매각하는 대신 투자와 효율성 증진을 약속하는 전략적 파트너에게 50퍼센트까지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이전시키고 나머지 가치가 상승한 지분을 국민연금기금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국영기업 개혁을 모색한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볼리비아는 YPFB, ENTEL, LAB, ENDE, ENFE, ENAF 등의 주요 국영기업을 자본화 시키며 약 17억 달러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다.

제련소의 자본화 작업을 통해 일단락 지어지게 되었다.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진행된 합작사업은 국내외 민간자본의 투자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01년 COMIBOL은 광업생산량이 없는 지주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다.

<표 2> 부문별 광업회사의 수, 1980-2000

연도	COMIBOL	중간규모 생산자	소규모 생산자	협동조합	계(*)
1980	15	24	6,000	400	6,439
1985	15	28	4,000	430	4,473
1990	6	22	1,200	490	1,718
1995	3	12	600	516	1,131
2000	0	14	420	520	954

출처 : Equipo MMSD América del Sur 2002, 180, 재인용

(*) 필자가 재구성

볼리비아는 2001년 약 15년에 걸친 COMIBOL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지었다. 구조조정의 결과 COMIBOL은 볼리비아 최대의 광업회사에서 순수하게 소유 광산의 임대계약과 합작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주회사로 탈바꿈하였다. 따라서 비록 국가의 광산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은 유지되었지만, COMIBOL은 더 이상 탐사, 개발, 채굴 등의 활동에 개입할 수 없게 되었다. 더불어 COMIBOL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거의 대부분의 광산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중 하나인 FSTMB는 무력화 되었다. 많은 이들은 민간자본이 모든 생산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COMIBOL의 구조조정을 볼리비아판 민영화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구조조정은 앞서도 지적한 원칙들 특히 광산에 대한 국가 소유권의 고수라는 측면을 볼 때 단순한 매각을 통한 민영화와는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의문은 존재한다. 왜 볼리비아는 COMIBOL의 구조조정을 국가 소유권의 유지와 공존하는 경영권의 민간이전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실행하였

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해 보겠다.

IV. COMIBOL 구조조정의 결정요인

IV.1. COMIBOL 구조조정의 경제적 결정요인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COMIBOL의 구조조정은 1985년의 경제 위기와 세계 주식 가격의 붕괴라는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만약 COMIBOL이 적합한 규모의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기업이었다면 아마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COMIBOL의 경영실적을 포함한 경제적 역할에 대한 분석은 COMIBOL 구조조정의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1985년까지 COMIBOL은 볼리비아 광업생산의 약 70 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던 세계 제2의 주식 생산회사였다(Farthing 1992, 17). 또한 볼리비아 최대의 국영기업으로서 COMIBOL은 국가재정의 확대와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라는 거시경제의 주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더불어 COMIBOL은 볼리비아 고용의 다수를 차지하던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용과 복지를 담당하고 있었다(Jordan and Warhurst 1992, 9). 그러나 COMIBOL의 경영실적은 좋지 못하였다.

COMIBOL의 경영실적을 계산하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각 방법들은 수치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COMIBOL이 1980년 이후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표 3> COMIBOL의 경영실적 I, 1952-1991 (미화 \$ 천 달러)

연도	흑자 또는 적자**	연도	흑자 또는 적자**
1952/53	-10,505	1973	9,305
1954	-26,945	1974	5,133
1955	-16,217	1975	-10,771
1956	n/a	1976	3,027
1957	175	1977	5,177
1958	-6,5735	1978	7,153
1959	-10,3145	1979	7,672
1960	-12,5575	1980	-29,968
1961	-9,5565	1981	-45,512
1962	-16,156	1982	-51,902
1963	-14,861	1983	-51,639
1964	-5,348	1984	-68,367
1965	-38	1985	-52,829
1966	1,972	1986	-200,144
1967	1,047	1987	-99,339
1968	1,178	1988	-41,419
1969	2,613	1989	-41,668
1970	2,036	1990*	-5,897
1971	784	1991*	-3,737
1972	1,033	총계	-783,957

(*) 운영실적

(**) 1992년 물가기준

출처: Müller & Associates, COMIBOL 자료에 기반하여 계산; Müller & Associates
1992, 262

<표 4> COMIBOL의 경영실적 II, 1976-1985 (미화 \$ 천 달러)

연도	이득 또는 손실	연도	이득 또는 손실
1976	48,974	1981	2,033
1977	89,998	1982	-17,988
1978	102,106	1983	-15,423
1979	118,270	1984	-44,868
1980	42,573	1985	-39,692

출처: Jordan and Warhurst 1992, 16, 재인용

Müller & Associates이 계산한 <표 3>에 따르면, 1952년부터 1991년의 기간 동안 COMIBOL은 총 약 7억8천4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동안 약 6억2천만 달러의 로얄티와 1억1천6백만 달러의 세금을 국가에 지불하였다. 또한 Jordan이 계산한 <표 4>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85년 사이 COMIBOL은 8천8백만 달러를 국고로 이전 시키는 한편 1억1천8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요약하면, 4년간 COMIBOL의 순적자액은 작고 가난한 볼리비아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3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를 두고 빠스 에스펜소로 정권에서 광업 및 금속부 장관을 지낸 비야로보스(Jaime Villalobos)는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COMIBOL은 화폐를 무책임하게 발행하던 중앙은행의 지급보증에 의존하였는데 이는 볼리비아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온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Villalobos 1989, 192).

한편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던 COMIBOL은 부채문제 또한 일으켰는데, 1981년부터 1985년 사이 약 4억 달러의 외채를 축적하였다(Villalobos 1989, 192). 결국 이러한 부진한 경영실적은 COMIBOL의 국가경제에 대한 공헌도를 급속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광업의 기여도가 1980년 10.54 퍼센트에서 1987년 4 퍼센트로 격감하는데 COMIBOL이 가장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결국 볼리비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선도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COMIBOL은 경영실적의 측면에서 볼 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였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COMIBOL은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며 국가재정과 수출공헌도는 1980년대 들어 급격히 감소하였다. COMIBOL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COMIBOL의 내적 문제점이 경제위기와 국제주석가격 하락이라는 외적상황과 맞물려 촉발되었다.

볼리비아의 정책담당자들은 COMIBOL의 낮은 경제기여도가 구조조정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빠스 엔스펜소로 대통령은 COMIBOL 구조조정을 둘러싼 반대세력들의 민영화에도 주장을 거부하며, 구조조정의 경제적 이유를 강조하였다.

나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제위기로 인해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COMIBOL의 모든 회사들이 거대한 적자를 양산하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COMIBOL의 구조조정은 노조지도자들과 급진적 정치가들이 진실을 비틀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 과정을 뒤로 돌리는 행위인 탈국유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현재의 상태로는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광업부분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것들을 구해내서 유지하기 위한 영웅적인 시도이다.

COMIBOL 운영의 지속성과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노조 지도자들은 비이성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구조조정 노력이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보다 더 그릇되고 거짓된 이야기는 없다. 누구도 COMIBOL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반대로, 이 계획은 국영광업 부문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구하는 것이자, 주석으로부터 은, 납, 그리고 다른 광물들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금속시장의 현재 상황에 부합하여 재조직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El Diario*, 1986년 8월 30일).

결론적으로, COMIBOL의 부진한 경영실적과 이에 따른 낮은 국민경

체 기여도는 COMIBOL의 구조조정의 중요한 이유이다. 즉 COMIBOL의 구조조정 없이 COMIBOL은 물론 볼리비아의 거시 경제 운영 또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볼리비아 국가는 COMIBOL의 구조조정이 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였다.

IV.2. COMIBOL 구조조정의 정치적 결정요인

앞서 살펴보았듯이, 볼리비아 국가는 기존의 체제로는 적자만을 양산하는 COMIBOL을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 관한 고찰만으로는 전면적 민영화도 완전한 국영화도 아닌 독특한 중간적 또는 복합적 형태를 보이는 COMIBOL 구조조정의 동인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지 COMIBOL 구조조정의 유무가 아닌 형태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정치적 동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비록 저조한 경영실적과 국민경제 기여도의 하락으로 인해 COMIBOL의 구조조정 자체가 추진되었지만 정치적 반대세력의 힘과 노력이 COMIBOL 구조조정을 위하여 가능했던 정책의 하나인 완전 민영화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으로 대표되는 반민영화 정치세력의 COMIBOL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역할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1) 노동조합

예상되는 바와 같이 COMIBOL 구조조정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세력은 노동부문이었다. 국영기업 노동조합은 가장 예측가능한 반민영화 정치세력의 하나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국영기업 노동조합의 확고한 반민영화 입장은 어떠한 형태의 구조조정도 노조원들이 가장 중시하는 사안인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Kikeri 1998).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노동조합이 가장 예측가능한 반민영화 정치세력이라는 점에는 합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노동조합의 반민영화 투쟁의 실효성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⁸⁾ 이에 본 연구는 COMIBOL의 노동조합이 보여준 반민영화 노력을 분석함으로써 국영기업 노동조합이 효과적으로 민영화를 저지할 수 조건들을 살펴보겠다.

역사적으로 볼리비아 노동운동은 고도로 정치화된 전국조직인 COB를 중심의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COMIBOL 구조조정의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광산 노동자들은 COB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들의 산별연맹인 FSTMB를 조직하여 볼리비아 노동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여 왔다.

1952년 혁명의 주역 중 하나인 볼리비아의 노동운동세력은 정치정당으로부터 분리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이익추구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혁명 직후 멕시코의 제도혁명당과 유사한 국가조합주의적 정치체제의 구축을 모색한 집권 MNR은 혁명의 주역 중 하나인 노동운동 세력의 COB 결성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멜로이와 가마라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볼리비아 노동운동은 멕시코의 국가조합주의의 길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Malloy and Gamarra 1987, 94). 즉 볼리비아 노동운동은 집권 MNR 내로 실질적으로 편입되기 보다는 국유화된 COMIBOL의 공동정부(cogobierno)와의 공동운동을 추구하며 군부마저 해체된 혁명 이후의 볼리비아 정치에서 노동자에 기반을 둔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구축하였다. 한편 볼리비아 노동운동 세력의 독자성은 MNR과 잇따른 군부정권하에서의 국가자본주의 발전모델에 대항하여 추구한 국가사회주의 또는 노동자계급주의 이념을 통해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MNR과 COB는 제2기 MNR 정권

8) Geddes(1995)는 이익집단 특히 도시조직노동자가 1980년대 이후 진행된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노동조합의 정치적 능력의 토대가 되었던 코포라티스트 정치체제를 해체시켜 노동조합의 정치적 약화를 가중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Remmer(2002)는 수출주도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동조합의 정치능력의 약화가 산업부문별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 Remmer(1997)는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같은 시기에 확립된 민주화를 지적하며 노동조합 특히 민주화된 국가를 상대하는 국영기업 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보존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의 IMF식 안정화 정책과 노동운동 견제를 위한 군대 재창설을 계기로 적대적 및 경쟁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결국 COB는 노동자의 이익추구라는 원칙 하에서 국가정책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MNR을 포함한 국가와 경쟁하는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MNR과 COB의 경쟁적 관계는 이후 NPE와 COMIBOL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군부정권의 붕괴에 이어 집권한 중도좌파 실레스 수아소 정권(1982-1985) 하에서 COB는 정치적 권력의 절정과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군부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이었던 COB는 실레스 수아소 정권하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COMIBOL의 노동자 공동운영(Worker Comanagement)을 노조원의 COMIBOL 이사직 진출과 의사결정권 획득을 통하여 달성하였다. 사실 COB의 정치적 능력은 실레스 수아소 정권과의 공동정부 구성도 가능할 정도였으나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국민의 책임추궁을 우려한 COB는 공동정부참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따른 긴축정책이 COB의 비타협적 저항에 부딪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 실레스 수아소 정권은 불명예스러운 조기퇴진을 하게 된다. 실레스 수아소 정권의 실패는 좌파 전체는 물론 노동운동 세력에 대한 국민여론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러한 좌파와 노동운동의 일시적 침체는 이어서 등장한 빠스 에스펜소로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안정화 정책인 NPE를 추진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파업, 단식투쟁, 거리행진, 도로봉쇄, 그리고 집거 등의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진행된 COB의 반NPE 투쟁은 결코 무시할 규모가 아니었다. 결국 빠스 에스펜소로 정권은 계엄령 선포와 지도부 구속 등의 강경한 탄압정책으로 실레스 수아소 정권의 실패와 함께 상대적으로 약화된 노동부문의 저항을 극복하고 NPE를 진행시킬 수 있었다.

1985년 이후 FSTMB를 중심으로 한 광산노동자들은 COMIBOL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국제주석가격의 붕괴와 함께 추진된 대량해고와 경제성이 없는 광산의 폐쇄를 목

적으로 한 COMIBOL의 제1단계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노동운동 최대의 무기인 파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당시의 빠스 에스텐소로 정권은 “파업을 통해서 국가는 임금을 지불할 계약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COMIBOL 경영진의 의사에 부합된다.”고 할 정도였다(Crabtree et al. 1987, 81). 이러한 상황에서 FSTMB의 투쟁은 거리행진)과 정치투쟁을 동반한 협상으로 집중되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COMIBOL의 반민영화 투쟁이었는데, COMIBOL의 구조조정, 특히 제1단계 구조조정이 민영화와 관계가 없는 대량해고와 부실광산들의 폐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1952년 혁명의 산물로 중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COMIBOL을 민영화하는 조치라는 노조의 주장은 정부의 정책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계획된 구조조정의 집행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노조의 제1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은 COMIBOL의 국유화 유지 및 노조조직의 방어, 해고수당 인상, 그리고 잔류한 노동자의 임금인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하지만 COMIBOL의 제1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광산 노동자의 대량해고는 노조원의 격감을 가져와 FSTMB의 조직능력을 약화시켰다.

1991년에 시작된 민간자본과의 합작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COMIBOL의 제2단계 구조조정 또한 노조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제2단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투쟁에서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합작사업의 대상이었던 광산의 점거투쟁이었다. 정부의 합작사업 추진에 대응하여 1991년 투피자(Tupiza) 광산노동자의회에서 채택한 소위 풀끼리 선언(Declaración Colquiri)은 광산점거를 통한 합작사업의 저지를 천명하였다. 일례로 1992년 10월의 민쁘록(Minproc)

9) 1986년 8월 FSTMB는 약 5,000명의 광산 노동자를 조직하여 오루로(Oruro)부터 수도 라파스(La Paz)간의 약 230 킬로미터의 소위 ‘생존과 평화를 위한 행진(Marcha por la Vida y la Paz)’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은 구조조정과 대량해고의 취소였다. 진행됨에 따라 점점 긴장감이 높아져 갔으나 결국 라파스 인근에서 볼리비아사제협회의 중재로 중단된 행진은 COMIBOL의 분화와 경제성이 희박한 광산의 협동조합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21,377의 도입을 연기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과 꼬미네사(Cominesa)광산점거는 합작회사의 사업 개시를 막기도 하였다. 결국 광산점거투쟁을 통한 합작사업 저지투쟁은 1993년 10월 정부로 하여금 합작사업 추진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FSTMB의 법적투쟁과 협동조합노조 FENCOMIN 및 오루로와 뽀또시 등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광산지역 시민위원회의 파업투쟁 또한 정부 계획의 집행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합작사업이 재개되어 2001년에 이르러 제2단계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기는 하였으나 노조와 다양한 사회세력의 반대투쟁은 제2단계 COMIBOL 구조조정을 최대한 지연시켰음은 물론 완전민영화와 같은 더욱 급진적 정책의 입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요약하면, 광산 노동자들은 COMIBOL의 구조조정에 저항하여 수 없는 파업, 광산 점거, 단식 투쟁 그리고 도로 봉쇄 등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FSTMB는 끈질기게 COMIBOL의 구조조정이 볼리비아 국민의 소중한 천연자원을 박탈하는 민영화 정책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하여 정부를 방어적으로 만들었다. 볼리비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노조인 FSTMB의 투쟁은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음은 물론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COMIBOL의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정권들에게 가장 큰 정치적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빠스 사모라 정권의 경제계획부 장관인 사무엘 도리아(Samuel Doria)의 “(볼리비아) 헌법은 공사(COMIBOL)의 완전 민영화를 위하여 1년 이내에 개정될 것이다(*The Financial Times*, 1992년 9월 3일).” 라는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국가는 15년에 걸친 구조조정 기간 동안 헌법개정의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FSTMB가 COMIBOL 구조조정의 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COMIBOL의 대표이사인 호세 삼브라나(Jose Zambrana)도 인정하는 점이다.

광산 노동자들은 그들이 1952년 혁명에서 무기를 손에 들었던 주체라는 점에서 크게 영향을 끼쳐왔다. 그들은 지난 40년간 국가에 의해 운영되어 온 COMIBOL 탄생의 주역이다. 노동자들은 운영에 참가하고 반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The Financial Times* 1992년 10월 23일)

그러나 FSTMB의 COMIBOL 구조조정에 대한 끈질긴 반대투쟁이 FSTMB가 과거에 지녔던 강력한 정치적·조직적 힘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COMIBOL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FSTMB의 정치적 힘은 현저히 쇠퇴하였다. 그러나 강조하건데, FSTMB의 정치적·조직적 능력이 약화되었다 할지라도, 정권들이 COMIBOL의 민영화를 정치적 위험성 없이 진행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즉 COMIBOL 광산노조는 경제위기와 약화된 조직능력으로 인해 COMIBOL의 구조조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완전한 민영화를 막을 정도의 정치적·조직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2) 좌파정치세력

2005년 1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의 사회주의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 이하 MAS)정권의 출현과 더불어 완성된 볼리비아 좌파정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혀 예상 밖의 사건이 아니다. 즉 2000년대의 볼리비아 좌파정치의 부활은 1985년 민주화 이후 첫 정권인 중도좌파 실레스 수아소 정권의 조기퇴출과 함께 상대적 침체를 겪었던 볼리비아의 좌파정치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반대를 발판으로 꾸준히 영향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확대 속에서 사회운동세력의 영역에서 제도정치로 확장된 볼리비아 좌파정치의 성공은 기대에 못 미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좌파세력의 꾸준한 자원산업의 국유화 지지주장은 자원의 국가 소유권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며 좌파정치세력의 정치 주도권 확보에 큰 기여를 하였다.¹⁰⁾

COMIBOL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1985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은

10)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좌파 정치세력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Bycho et al. 1996; Boix 1997; Boix 1998; Remmer 1998; Biais and Perotti 2002; Biglaiser 2003; 2004). 좌파 정치세력이 국영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적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의 적극적 경제영역 개입을 믿는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더불어 잠재적 지지층인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여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려는 실용적 측면에 기인한다.

볼리비아의 좌파정치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를 겪던 시기이다. 1990년대 들어 활기를 띠기 시작한 사회 및 민중부분에 비하여 좌파정치는 특히 제도정치권에서 약세를 보였다. 이 시기의 볼리비아 제도정치는 MNR, 민족주의민주행동당(Acción Democrática Nacionalista, 이하 ADN), 그리고 혁명좌파운동(Movimiento Izquierdista Revolucionario, 이하 MIR)의 3당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중도좌파로 분류되던 MIR이 1989년 우파정당인 ADN과 연정을 구성함으로써 의회 내의 좌파정치의 힘은 미약하였다.

<표 5> 볼리비아 의회의 구성, 1985-2001 (하원130명/상원27명)

정당/전선	1985	1989	1993	1997	2002
MNR	43/16	40/9	52/17	26/4	
MNR-MBL					36/11
ADN	41/10	38/8		32/11	4/1
AP (MIR/ADN)			35/8		
MIR	<u>15/1</u>	33/8		23/7	26/5
UCS			20/1	21/2	5/0
CONDEPA		9/1	13/1	19/3	
NFR					25/2
ARBOL			1/0		
MBL			7/0	5/0	
MIP					<u>6/0</u>
MAS					<u>27/8</u>
IU		<u>10/1</u>		<u>4/0</u>	
PS-1	<u>5/0</u>				
PS					<u>1/0</u>
Eje			<u>1/0</u>		
Others	26/0		<u>1/0</u>		

* 좌파정당은 진하게, 기울여서, 밑줄.

출처: Corte Nacional Electoral

<표 5>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좌파정당들은 1985년부터 2002년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특히 제2단계 COMIBOL 구조조정이 진행된 기간(1989-2001) 동안, 의회내의 좌파 정당들의 존재는 미약하였다. 그러나 의회에서의 좌파정당의 약화된 힘이 COMIBOL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좌파정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은 MIR의 존재였다. 특히 MIR가 ADN과 연정을 구성하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포기한 1989년 이전까지 MIR는 다른 좌파정당들과 연합하여 COMIBOL의 전면적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주요한 반대자의 역할을 하였다(*El Diario* 1986년 8월 28일).

한편 MIR의 사회주의 포기와 이에 따른 의회에서의 좌파 정당의 부재 속에 추진된 제2단계 COMIBOL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좌파정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의 좌파정치는 산체스테 로사다 정권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함께 활기를 띠기 시작한 지방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점증하던 신자유주의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확장되어가는 상황에서 좌파 정당들은 코카재배농민, 원주민 운동 조직 그리고 풀뿌리 도시조직들을 기반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아갔다¹¹⁾.

한편 볼리비아 유권자들의 좌파 성향 또한 좌파 정당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국가가 COMIBOL의 구조조정을 심화시켜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지 못한 이유이다. 통계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좌파 유권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하나이다. 1999년 실시된 *Wall Street Journal*의 한 여론조사¹²⁾에 따르면 볼리비아 유권자의 35.1 퍼센트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좌파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브라질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높은 비율이다. 또한 동일한 여론조사에서 볼리비아의 정치성향은 0이 좌파를 의미하고 10이 우파를 의미하는 정치적 이념 지표로 계산했을 때 4.83을 기록하며 라

11) 예를 들어 좌파정당들은 지방선거 득표율을 1993년 5 퍼센트에서 1995년 11 퍼센트로 크게 증가시켰다(Domingo 2001, 147).

12) The Mirror on the Americas Survey

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좌파적인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좌파정당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좌파적 정치 아젠다는 볼리비아 유권자 사이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였다. 결국 이러한 볼리비아 정치의 좌파적 경향은 기존 정당 및 새로운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앞 다투어 좌파 유권자들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볼리비아 정치의 특징은 COMIBOL의 완전 민영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음은 물론 MAS의 출현에서도 증명되듯이 새롭고 강력한 좌파정당의 출현을 이끌어 냈다.

덧붙여 볼리비아 정치의 몇 가지 특징들 또한 광업정책에 영향을 끼쳤는데, 첫 번째 특징은 네오포퓰리스트¹³⁾ 정당의 약진이었다. 즉 중산층 이하의 유권자를 지지 세력으로 약진한 네오포퓰리스트 정당들은 좌파정당 부진의 공백을 메우며 민영화 반대세력의 우군의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1991년 광업법 개정과 관련한 논쟁에서 네오포퓰리스트 정당 CONDEPA는 좌파정당 중심의 반대블록에 참가하기도 하였다(*Presencia* 1991년 4월 5일).

<표 6>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자와 연정, 1982-2002

Year	President Elected	Coalition
1982	Hernán Siles Zuazo (MNRI)	MNRI/PCB/MIR
1985	Víctor Paz Estenssoro (MNR)	MNR/ADN
1989	Jaime Paz Zamora (MIR)	MIR/ADN
1993	Gonzalo Sánchez de Lozada (MNR)	MNR/MBL/UCS
1997	Hugo Bánzer Suárez (ADN)	ADN/CONDEPA/MIR/UCS
2002	Gonzalo Sánchez de Lozada (MNR)	MNR/MIR/UCS

출처: Dunkerley, 2000; Singer and Morrison, 2004를 바탕으로 재구성.

13) CONDEPA(Conciencia de Patria), UCS(Unión Cívica Solidaridad) 그리고 NFR(Nueva Fuerza Republicana)로 대표되는 볼리비아의 네오포퓰리스트 정당들은 뚜렷한 이념적 지향점 없이 개인적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한 인기 영합적 정치행동을 특징으로 한다. 기존 정치권 또는 정책에 대한 불만층을 유권자로 하는 볼리비아의 네오포퓰리스트 정당들은 지도자의 사망 또는 연정의 하위 파트너가 되며 사라졌다.

광업 정책에 영향을 끼친 두 번째의 볼리비아 정치의 특징은 연정 정치이다. 즉 볼리비아 특유의 ‘혼합적 대통령제 체제(hybrid presidential system)’하에서 정당 연합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연정 정치는 NPE와 같은 일반 정책의 입안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COMIBOL의 완전 민영화와 같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의결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¹⁴⁾ 즉 삼당 중심의 정치에서 연정에서 소외된 야당은 이념에 상관없이 집권연정의 정책을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헌법 개정과 같이 다수의 지지가 필요한 정책의 실행을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MIR의 경우 자신들이 연정을 이끌던 1991년 도입되었던 광업법의 주요 내용을 연정에서 소외된 1997년에는 반대하기도 하였다.

요약하면 제도정치 내에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좌파정치 세력은 COMIBOL의 구조조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국유화된 광산의 완전 민영화와 같은 급진적인 제안을 좌절 시킬만한 정치적 능력이 있었다. 특히 (1) 좌파 유권자의 높은 비율, (2) 때때로 좌파와 연합하는 네오포퐁리스트의 약진, (3) 볼리비아 특유의 연정 정치의 본질 등의 볼리비아 정치의 특징적 요소는 노동조합과 좌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전개된 COMIBOL의 반민영화 투쟁에 큰 도움을 주었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COMIBOL 구조조정의 사례는 광업부문 국영기업 구조조정의 원인과 이유 그리고 다양한 구조조정의 형태를 결정짓는 동인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COMIBOL 구조조정의 사례로 볼 때, 국영기업의 경제적 실적과 기여도는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를 결정짓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COMIBOL의 저조한 경영 실적과 현저하게 낮아진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구조

14)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상하 양원 각각 2/3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조정의 필요성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즉 볼리비아 국가가 적자를 양산하는 국영기업인 COMIBOL을 더 이상 경제적으로 지탱할 수가 없었던 것이 구조조정을 시작한 이유였다.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의 경제적 이유는 제1단계 구조조정의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합작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화된 형태의 제2단계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원인이었다.

COMIBOL의 구조조정 사례는 또한 정치적 변수들이 국영기업 구조조정의 성격과 형태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볼리비아의 경우 노동조합과 좌파정치세력이 COMIBOL의 구조조정의 성격과 형태를 결정하는 정치적 변수의 역할을 하였다. 우선, 노동운동 특히 광산 노조인 FSTMB는 일반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국유화된 COMIBOL 광산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이었다. 이러한 광산 노조의 반대와 저항은 볼리비아 국가의 구조조정 정책의 선택권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광산 노조는 비록 경제위기와 약화된 조직력으로 인해 COMIBOL의 구조조정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국유화된 광산의 완전 민영화를 저지할 정치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한편 볼리비아의 사례는 시민위원회와 협동조합 노조 등 다양한 성격의 시민 및 민중운동 세력이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좌파 정치세력 역시 COMIBOL의 구조조정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짓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 볼리비아의 사례를 통하여, 제도정치에서 영향력 있는 좌파정당의 존재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볼리비아의 정치적 특징들(높은 좌파 유권자 비율, 연정 정치, 그리고 네오포퐁리스트 정당의 약진)이 COMIBOL의 반민영화 투쟁에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COMIBOL의 사례는 COMIBOL을 탄생시킨 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국유화된 광산에 부여된 헌법적 지위와 같은 정치제도 또한 국영기업 구조조정의 성격과 형태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리비아의 COMIBOL 사례는 강력한 반민영화 정치 세력과 저조한 경영 실적 및 낮은 경제기여도의 조합이 완전한 민영화를 동반하지 않는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causal reasons of public enterprise reform, particularly determinants of various forms of public enterprise reform. The case for this study is COMIBOL of Bolivia. Since it was nationalized in 1952, COMIBOL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public enterprises in Bolivia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n 1985, however, a severe economic crisis and the collapse of the world tin market forced the Bolivian state to restructure COMIBOL. The Bolivian state's option for restructuring COMIBOL was neither full-privatization nor no-privatization. The restructuring program of COMIBOL mainly contains laying off workers, closing unprofitable mines and contracting joint ventures with private capital. However,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acies of the 1952 Bolivian revolution, COMIBOL's nationalized mines were never fully privatized. According to the evidences presented in the study, economic benefits a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hat determines whether some type of restructuring should be implemented or not. Also, the COMIBOL case shows that political variables were important to determine the type of public enterprise reform. Particularly, the Bolivian case verifies that both the labor union and the left show strong opposition to the privatization of COMIBOL. Therefore, the COMIBOL case confirms that the combination of high political opposition and low economic benefits led to the COMIBOL's restructuring without total privatization of mines.

Key Words: Bolivia, COMIBOL, Mining, Public Enterprise, Restructuring/
볼리비아,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 광업, 국영 기업, 구조조정

논문투고일자: 2007. 07. 15

심사완료일자: 2007. 07. 31

게재확정일자: 2007. 08. 12

참고문헌

- 이재형(2000), 『지주회사의 본질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Biais, Bruno and Enrico Perotti(2002), "Machiavellian Privat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pp. 240-258.
- Biglaiser, Glen(2003), "The Determinants of Privatization in Latin Americ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6, No. 1, pp. 77-89.
- Boix, Carles(1997), "Privatizing the Public Business Sector in the Eighties: Economic Performance, Partisan Responses and Divided Governmen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7, No. 4, pp. 473-496.
- Boix, Carles(1998), *Political Parties, Growth and Equality: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Economic Strategies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nbright, J. C. and G. C. Means(1932), *The Holding Company*, New York, NY: McGraw-Hill Book Company, Inc.
- Boycho, Maxim,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1996), "A Theory of Privatization," *The Economic Journal*, Vol. 106, No. 435, pp. 309-319.
- Conaghan, Catherine M. and James M. Malloy(1994), *Unsettling Statecraft: Democracy and Neoliberalism in the Central Andes*, Pittsburgh, PA and London, UK: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Congreso Nacional de Bolivia(1967),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 Congreso Nacional de Bolivia(1995),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 Crabtree, John, Gavan Duffy and Jenny Pearce(1987), *The Great Tin Crash Bolivia and the World Tin Market*, London, UK: Latin American Bureau.
- Domingo, Pilar(2001), "Party Politics, Intermediation and Representation," in John Crabtree and Laurence Whitehead(eds.), *Towards*

- Democratic Viability: The Bolivian Experience*, Oxford, UK: Palgrave in association with St Anthony's College, pp. 141-160.
- Dunkerley, James(2000), *Warriors and Scribes: Essays on the History and Politics of Latin America*, London and New York: Verso.
- Equipo MMSD América del Sur(2002), *Minería, Minerales y Desarrollo Sustentable en América del Su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IIE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WBCSD).
- Evia, José Luis and Ramiro Molina Barrios(1997), "Estudio Medio-Ambiental de la Minería Mediana, Pequeña y Artesanal en Bolivia," Documento de Trabajo, No. 02/97, El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Socio-Económicas, La Paz, Bolivia: La Universidad Católica Boliviana.
- Farthing, Linda(1992), "Bolivian State Miners: End of Era?," *IDRC Reports*, La Paz, Bolivia: Ministry of Mines.
- Gamarra, Eduardo A.(1998), "Facing the Twenty-First Century: Bolivia in the 1990s," in Kurt von Mettenheim and James Malloy (eds.), *Deepening Democracy in Latin America*,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Gamarra, Eduardo A. and James Malloy(1995), "The Patrimonial Dynamics of party Politics in Bolivia," in Scott Mainwaring and Timothy R. Scully(eds.),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Party Systems in Latin Americ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399-433.
- Geddes, Barbara(1995), "The Politics of Economic Liberalization,"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1, No. 2, pp. 195-214.
- Jordan, Rolando and Alyson Warhurst(1992), "The Bolivian mining crisis", *Resources Policy*, March 1992, pp. 9-20.
- Malloy, James and Eduardo Gamarra(1987),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Bolivia," in James Malloy and Mitchell Seligson(eds.),

- Authoritarians and Democrats: Regime Transition in Latin America*,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Morales, Waltraud(2003), *A Brief History of Bolivia*, New York, NY: Fact On File, Inc.
- Müller & Associates(1992), “La COMIBOL y Los Contratos de Riesgo Compartido”, *Boletín*, No.74, Septemebr-October, La Paz, *Bolivia*, pp. 243-273.
- Remmer, Karen(1997), “Theoretical Decay and Theoretical Development: The Resurgence of Institution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50, January, pp. 34-61.
- Remmer, Karen(1998), “The Politics of Neoliberal Economic Reform in South America, 1980-1994,”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3, No. 2, pp. 3-29.
- Remmer, Karen(2002), “The Politics of Economic Policy and Performance in Latin America,” *Journal of Public Policy*, Vol. 22, No. 1, pp. 29-59.
- Singer, Matthew M. and Kevin M. Morrison(2004), “The 2002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in Bolivia,” *Electoral Studies*, Vol. 23, pp. 172-182.
- Thorn, Richard(1971), “The Economic Transformation.” in James Malloy and Richard Thorn(eds.), *Beyond the Revolution: Bolivia since 1952*,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Vega, Oscar(1991), “COMIBOL: Del Lugar Común al Sentido Común” in Alvaro Aguirre, Hugo del Granado, Igor Irigoyen and Carlos Villegas, *Privatización en Bolivia: Mitos y Realidades*, La Paz, Bolivia: CEDLA.
- Velasco, Pablo(1981-2001), “The Mineral Industry of Bolivia,” in *U.S. Geological Survey Minerals Yearbook*, Washington D.C., The Bureau of Mines: Various Issues.
- Villalobos, Jaime(1989), “Bolivia’s Strategy for restructuring the state’s

mining sector and promoting private investment in mining,”
Natural Resources Forum, Vol. 13, No.3, August, pp. 191-197.

• 신문

American Metal Market

El Diario, Bolivia

Financial Times

Presencia, Bolivia

The Wall Street Journal